

4. 배방면

가. 배방면 마을 1 (갈매리)

1) 조사일정

1993. 12. 17., 이미진 기록

조사 둘째 날. 조원들과 화이팅을 외치며 10시에 숙소를 출발하여 갈매리 노인회관에 도착한 시간이 10시 50분이었다. 이곳에서 전창배 씨로부터 <3.1 운동 때의 어느 일본인 이야기>와 <두레 먹기>, <호랑이 도깨비>, <맹정승의 황소(검은 소)> 이야기를 들었다. 또 공기훈 씨가 <맹정승의 효심>, <토정 이지함>의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이곳 역시, 사전조사 때 약속이 되었던 터라 기대가 자못 컸었는데 조사 첫날의 회룡리와는 대조적으로 분위기가 썰렁하고 구연 의욕이 없어 더 이상은 무리라는 판단 하에 중리에 가면 고불 맹사성의 고사가 많을 거라는 제보를 얻어 갈매리 노인회관을 나왔다.

1시에 중식을 하고 1시 50분에 중리로 향했다. 중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지리적으로도 멀었고 교통상으로도 아주 불편한 곳이어서 한참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중리에 도착하였으나 무슨 일인지 마을이 비어 구연 가능자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맹씨 행단>과, <맹정승 느티나무>의 사진만을 찍고 4시 20분에 중리를 떠나 숙소로 향했다.

2) 마을 개관

337-850 충청남도 아산군 배방면 갈매리 1구

1993. 12. 16. 정지윤 조사.

좌우리라 불리던 마을이 왜정 때 갈매리로 고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갈매리는, 남자의 인구수가 약간 많은 곳으로 청년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아 상을 탄 적도 있는 마을이다. 대부분이 농업을 하며 작은 진료소와 갈매교회가 위치해 있다.

큰길에서 작은 갈림길을 따라 조금만 들어가면 마을이 나타나는데 매우 한적해 보인다.

줄다리기, 씨름 등을 하는 체육대회가 1년에 한두 번씩 열리며 노래자랑도 마을사람들 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 열린다고 한다.

3) 구연자

【갈매리 구연자1】

배방면 갈매리 1구 407번지, 전창배(全昌培) 남, 71

1993. 12. 17., 김명선 조사

갈매리에서 66년째 살고 있으며 그전에는 풍세에서 살았다고 하였다. 신명내서 구연하였고 생각이 안나면 목소리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지역에 얹힌 얘기를 많이 하여서 손을 이쪽 저쪽으로 옮기면서 가리켰다. 자신이 아는 것을 되도록 많이 나타내려고 하였고 사실을 중

시하였다. 그리고 일제시대에는 특정 일본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다.

【갈매리 구연자2】

갈매리1구 401번지, 공기훈(孔기훈) 남, 70

1993. 12. 17., 김명선 조사

여기에서 7대째 거주하고 있으며 서당에서 한문을 수학하였는데 논어까지 배웠다고 한다. 배우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많이 배운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딸이 상명여대 영문과에 다닌다. 천천히 자신이 아는 사실만 조심스럽게 말하였고 옆의 청중이 끼어들어 얘기하면 조용히 경청한다. 어느 할아버지와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있었고 약간 왜소한 몸집과 백발이 그의 나이와 경륜을 말해주는 듯하였다.

4) 설화자료

【갈매리 설화 1】

배방면 갈매리 노인회관, 1993. 12. 17., 이미진, 김명선, 정지윤 조사

전창배(남, 71)

3.1 운동때의 어느 일본인 이야기, 두레 먹기, 호랑이 도깨비, 맹정승의 황소(검은소)

갈매1 앞

여기 우리 동네가 으 옛날에는 좌 좌우리 (조사자: 좌우리요?) 응, 좌 우 리. (조사자: 아, 예.) 소우리래. 소 (조사자: 예.) 이 동네가 왕우리라 해서 동네가 좌우리에서 참 명당이 있다구래서 각처에서 와서 저 제사를 지내는데 지관들이 와서 참 이거 참 좋은 데라 했거든. 근디 과연 여 여기 태악산 줄길데 여기가 태악산 줄기 북편에 거기서 거기서 내려다 본다면은 1년에 한번씩 큰산, 호서대학교지, 여기가 일본 사람이 살았어. 여기 육지가. (청중: 조사자들을 보며, “뭐하러 땡겨? 아가씨들이.”) 가만 있어 봐. 일본 사람이 살았는디 일본 사람이 와서 제일 부자로 살았어. 일본 사람이. 살았는디 처음 저 함방 되 가꾸서 근데 그가 젊어서 왔다. 젊어서 왔는디 한국말을 모를 꺼 아니야.(조사자: 네.) 일본, 저 함방되가주구선 일본 사람이 여 처음 살았단 말이야. 모를꺼여 한문하는 데에서 한문은 통하거든, 일본, 옛말도 한문으로 통하는 게여. 일본, 그 참 그렇게 해서 다 통했어. 그래서 인저 몇 냥반들이 이 동네. 나 얘기만 들었지. 그건 잘 모르지. 그건 그렇기 아는디 아는디 기미년 만세 있잖아 만세, 유관순 만세, 이 동네 각처에서 다 일어난겨. 만세 부르는 소리 다 일어났는디 여기 뭐여 예 아 다 일어났는디 큰일 났어. 일본순경이 와서 다 붙잡아 가는겨. 근디 이 일본 사람이 아 이 동네는 저기 한 일도 없다고 말이여 만세 부른 일도 없다 했는디 만세를 부르러 갔다 이기여. 그래도 일본사람이 한복을 입고 두루마기를 입고 불튼기여. 이 동네 사람이 다 불렀는디 며칠씩 잡으러 올께 아니여. 근디 일본 사람이 불른 일 없다 이기여. 없다 해서 모면을 했어. 참 고마운 분이여, 그 분이. 참 고마워. 자기도 불렀단 말이야. 만세를 불렀어. 그랬는데 애, 그러고서 인저 이 동네가 우리 동네가 그때에 이 동네가 50호 있었어.

50호 한 천다섯 호, 호수가. 호수가 그랬는디 여기 와서 농사를 짓는기여. 그것도 순농사여. 양잠을 했어, 양잠. 이 동네에서 양잠을 했던 말여. 양잠을 해서 이 동네가 배방면에서 제일 낫나고 그라지, 제일. 아주 참 부촌이라고 소문 났너. 그가 여기 발전을 많이 시켜 줘어. (조사자: 일본사람이요?) 일본사람이.

옛날에 옛날에 두레라는 게 있어, 두레. 두레라는 모는 다 했어. 두레란 게 뭔지 알아? (조사자: 일할 때…….) 일할 때 모는 게 두레여.

그래서 별이가 말이여, 잉? 별이 날아갈 때 두레, 두레 했어. 두레 하면 모여들어, 온토라는 거여, 온토. 온토가 예, 그것이 저기여, 온토 두레, 온 동네. 온 동네가 그게 그렇게 되는데 동네가 모여 모여서 일을 하는 게 두레란 말이여. 두레 먹는다 했는데 그래서 이 동네가 말하자면 두레 그기가, 농기가 있어, 농기, 농기가. 응? 농사는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라고 풍작을 추구하려면 그게 있거든? 근데 이 동네가 저 안골동 말고 새교라고, 그게가 먼저 그 게 생겼어, 기가. (조사자: 예.) 기가 말하자면 두레먹은 거기가 전체가 먼저 됐는데 이 동네가 인저 거기 거기서 인저 의뢰를 받아 갓구 거기 선생님이여, 말하자면 큰집이여. 거기서 만자 해서 우릴 내 중겨, 말하자면. 살림을 내 준거 한 가지여. 저기는 큰집이고 여기는 작은 집이란 말이여. (조사자: 예.) 아 공께 작은집 큰집끼리 여름이면 논을 메구려..논을 메는디 그 동네 사람 이 백 명. 이 동네 사람이 한 백 명 이렇게 모여드는 기여. 한 잔 먹고 그랬는데 한 잔 먹다 보니까 기가 이저 기가 목이 선생이여, 목 있는 데가. 거기 가서 모가지 따왔어, 깃 모가지를. 이 동네 사람이 선생 모가지를 빼 왔단 말이여. 모가지를 빼 왔는데 저 동네에서 야단할 거 아냐? 그냥 막 시비가 굉장했던 말여. 거기서 시비가 굉장히 붙었어 그냥. 아, 이 동네로 그냥 막 오구, 모가지 깃 모가지 찾으러 온 사람들 여름인디, 그 때 인자 논 땀 직에 여름인데, 7월, 8월. 갓다 사랑방에다 불을 뜨끈뜨끈 때 놓구선 가두구 가두구선 말이야, 잉. 거기서 말이여 그냥 아주 혼나게 경을 쳤거든. (조사자: 예) 어떻게 소송이 됐었어. (조사자: 예) 소송이 되니 저쪽 저 저쪽 심씨네가 있어. 아주 나쁜 심씨여. 여기 여기도 심씨가 있었지, 이 동네두. 근디 이 동네 있는 심씨는 촌수가 높고 근데 이 말하자면 그 낭반이 반장, 반장이 아니고 좌상 (청중: 좌상) 좌상이여. 그 낭반이 (청중: 공자상) 공자상이라는 게, 공자상이라는 게 ‘이리 하라 혀라’. 예? ‘가라 가라’ 인저 공자상이, 그네가 심씨네여. 아, 소송이 붙어 저기 잡으러 왔단 말이여. 거기 심씨네가 또 온양 경찰서, 옛날에 참 보근원으로 땡겼어. 보근원이라는 거. 거기 있는데 그가 어찌. 집안 싸움 붙은 기여. 동네사람이 원 우두머리가 각 동네 한 한 성이니까. 촌수는 여기 우리 동네가 높구, 거기는 낮거든. 그게 삼질을 못하네. 게, 그렇게 해서 화 화합을 붙이느라구, 그래서 화합이 됐어.

배방산은 그게 배방산이 참 저기 저쪽 태악산 저 호서대학교 뒤에 가면 최고봉이 있어, 최고봉. 태악산이 참 좋거든, 거기서 내려다보면. 내가 봐도 거기는 뭐가 될 꺼 같으다 그래더니 과연 논산이 지금 굉장히 발전이 났어. (배방산 줄기데) 태악산 줄기야. 거기도 여기도 악산 줄기고. 태악산 줄기가 그 위로 떨어지고 이 동네로 떨어지고 또 저쪽 풍산면 용동리라고 그쪽 용동리로 떨어졌거든 세 갈래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우리 동네로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져 배방산으로 떨어졌는데 고거는 모르지 그건. (청중: 옛날 얘기 또 하나 해야겠네.) 저기 근게 우리가 내가 거기를 여기 내가 5대를 어른들 가만 있어 나좀봐,나좀. 여기 좀 봐,여기 녹음하느디 들어가.그래서 내 얘기좀, 내가 들은 얘기여, 이 동네 그 때 그 양반이 저 옛날에는 아마 지금부터 몇 백 년 됐을 기여. (조사자: 탕나무요?) 탕나무, 탕나무

가 무지하게 있었어 (조사자: 지금도 있어요?) 오래 전에 있었지. 무지하게 됐어.(청중: 한 3천년 됐어.) 그 집이 살았는디 옛날 어느 사람이 내가 생각해도 지금부터 한 백년 백오십년 전 일 같아, 내가 지금 칠십 둘인데 그런 양반들 젊었을 때 열 살 열다섯 살 열 여섯 살 쯤 얘기를 들었거든. 들었는데, 그 때 호랭이가 왔는데 살롱이가 말이며, 잉. 호랑이를 잡았는데, 도깨비가 지나가는데 도깨비, 도깨비 이건 틀림없는 얘기야, 실화나 마찬가지여. 도깨비는 술이 있잖여 술. (조사자: 예.) 술뚜껑이 술안으로 들어가. (조사자: 어머!) 거짓말인지 알 끼여, 술뚜껑이 왜 술안으로 들어가느냐 그래 저 놈이 자고 나면 어허 들어갔네, 얼마 있으면 또 되리 빠져나와, 거짓말이라 여기지? 신빙성이 없어, 나도 거짓말이라 생각했어. 그랬는데 지금 지금 봐. 텔레비 같은 거 봐, 어디서 오는 고, 말도 그냥 전국적으로 가는 거 그거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 나도 신빙성이 없다고 봤는디 그게 아니여 진짜여. 도깨비가 그게 본 사람은 있다고도 볼 수 없고 없다고도 볼 수 없어. 거기 지금 불이 나면 말이며 나가, 이 학생들은 모를꺼. 불어나가면 불이 쉽거든. 그거를 광덕 사람이 애길 하는디 여 먼디도 아녀, 광덕 천안군, 불이 났는디 불이 났다가 금방 꺼지는 거, 몇 해 안 된기여. 그 사람들이 그랴. 그래 그 집이 영 못 살구 그냥 못 살구 그냥 못살터란 말이며. 불과 한 백년도 안 된기여. 거짓말이라 할꺼, 무슨 놈의 불이 금방 났다가 금방 꺼져? 그게 도깨비다, 그게. 그래서 난 그래서 그것도 맞는 말이고 예전에 어른들이 뭐 앉아 천 리 뭐 구만 리 본다나, 그게 있는 말이며. 지금 우리 세상이 이렇게 발전되는 거 봉께. 아 이거 봐 앉아서도 말도 그냥 몇 천 리서 그냥 전화도 왔다갔다 하고 공중으로 날라 다니고 말이며, 응? 공중으로 왔다 갔다 함께. 별다른 애긴 없고 이런겨.

맹정승이 그 양반이 예전에 예전에 여기 도리뭇이란 게 있었어, 도리뭇. (조사자: 도리뭇이요?) 응 도리뭇, 거기를 뉘시질을 땡겼어. 옛날에 (조사자: 예.) 뉘시질을 땡겼는데 한 냥반이 둘이가 친구가 됐어, 맹정승하고. 근디 그분이 누군가 하면 칙천 전씨여 전씨, 돈마루여, 돈 많아서 거기 뉘시를 땡기는 겨. 인저 같이 뉘시를 하다 보니까 잉, 인저 어서 왔느냐고 잉. 나는 맹 아무라고 인저 서울서 왔다고 그런겨. 그랬는데 만날 뉘시를 해. 뉘시질을 갖는데 아주 친절해졌어, 전씨하고. 그 냥반하고 친구가 됐어. 그래서 내가 초청을 할 테니까 오라고 말이며. 내 생일인데. 인저 그가 간기여, 그 때. 보리 개떡을 썬 간기여.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선물로. 그런 얘기 들은 게 있어 내기. (청중의 개입으로 한동안 말이 엇갈림) 아, 가보니까 정승집이야, 거게. 내색을 안 했어.

【갈매리 설화 2】

갈매리 노인회관, 1993. 12. 17., 이미진, 김명선, 정지윤 조사

공기훈(남, 70)

토정 이지함

*공기훈씨는 주로 전창배씨의 구연에 맞장구를 쳐주었고 공기훈씨의 구연시에는 전창배씨가 자주 참견을 해서 거의 두 사람이 공동으로 구연하였다.

전라북도 넘어가는데 충청돈디 (전창배씨: 뭐여, 모시나는디, 한산 모시 나는 더.) 거기가 고

향이거든. 거 거기서 이제 우리들이 거 토정 선생을 아주 그분이 원래 거 토정은 그분은 토정비결을 맨들고. (조사자: 그분에 대한 일화 같은 건요?) 전해 내려오는, 전해 내려오는 그분이 인제 한산 이씨유. (조사자: 그분이 이렇게 지관을 잘 보셨다구 그러대요?) 암, 지관 잘 보지. 그분도 거 가족묘관에 저 능통한 분인겨. 토정비결, 지관, 형세, 묘자리 이렇게 지관에 이렇키 능통했어. (조사자: 그분이 죽을 때는요 무슨 지네 생즙인가 그걸 먹구 죽었다구요?) 에, 그래, 지네 생즙을 먹고 죽었어요. (조사자: 그 얘기 아세요?) 에, 아니, 그거만, 지네 생즙을 먹고 밤, 밤, 밤을 먹어야 되는데 밤을 먹어야 되는데 (전창배씨: 미류나무 생을 쳐서.) 미류나무 생을 쳐서 그게 죽었어. (청중: 그 부하가 말여, 그렇게 밤을 주면 사는데 밤을 안 주고 미류나무, 미류나무를 밤처럼 거 그게 먹어서 그래.) 미류나무 생을을 쳤으니 밤은 밤같이 깎았어도 같다 맥이면은... (녹음불량)

나. 배방면 마을 2 (공수리)

1) 조사 일정

1993. 12. 16., 박은실 기록

조사 첫날, 점심식사 이후 숙소인 배방 노인회관에서 조사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우선 할아버지들이 좀더 모이기를 기다렸으나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더 이상 오시지 않아, 옆방에 모인 할아버지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이순신 장군의 11대손이라는 이민영씨가 <맹사성이 설화산에 자리잡게 된 이유>와 <배방산 이름 유래>에 얽힌 이야기를 구연하였고, 곧이어 현광쇠 씨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조 5수를 읊어 주었다. 4시경이 되자 할아버지들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어 아쉽게도 짧게 조사를 끝마쳐야 했다.

2) 마을 개관

【배방면 마을 2】

337-850 충청남도 아산군 배방면 공수리

1993. 12. 16., 신향자 조사

배방면 공수리는 2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다. 남녀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고 노년층이 청장년 층보다 많은 마을이다. 길가에 위치한 마을로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공수리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적었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 편이라고 한다. 공수리는 모산이라고도 불리는 마을로 천안과 온양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3) 구연자

【공수리 구연자 1】

배방면 공수리 1구 324 번지, 이민영(李玟英) 남, 83

1993. 12. 16., 한혜인 조사

이순신 장군의 11대손이라 했다. 몸이 단정하고 눈매가 몹시 사나웠다. 조사자들의 취지를 잘 알아들었고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자신은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집안의 내력으로 효와 충을 중시여기는 분위기에서 자랐다고 하였다. 젊었을 적에는 배를 타기도 하였고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안 해본 일이 없다고 말하였다. 고향으로 돌아온 지는 20년 가까이 되었고 지금은 농사를 짓기도 하고 대부분의 생활비는 도시에 살고 있는 아들에게 받고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 상태에 매우 불만스러운 눈치였다.

구연 도중에 남이 끼어드는 것을 무척 싫어하였고 주위 사람들도 그를 조금은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웃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구연이 하나 끝나면 조사자에게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멋지게 웃었다. 청중들의 그의 이야기에 맞장구도 치지 않았고 도중에 말을 걸려하다가도 그의 매서운 눈썹에 주눅이 들곤 하였다.

【공수리 구연자 2】

배방면 공수리 1구 211 번지, 현광쇠(玄廣쇠), 남, 74

1993. 12. 16., 한혜인 조사

이민영씨의 구연이 끝나자 아무도 구연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마침 노인회관에 장고가 있길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장고로 민요를 부르냐고 묻자 노인들이 소리는 현광쇠 씨가 잘 한다며 추천을 해 주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얼굴이 인자하게 생긴 분으로 추천을 받자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몹시 좋아하면서 부르기 시작하였다.

공수리에서 산지는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한다. 원래 고향은 조치원이었으나 자신의 아버지가 이곳으로 이주해 와서 살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였다. 젊었을 때는 광산을 찾아다니느라고 배운 것은 없다고 하였다. 술만 마시면 노래가 입에서 절로 난다고 하면서 끊이지 않고 불러주었다. 설화구연도 부탁해 보았으나 그것은 아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4) 설화자료

【공수리 설화 1】

공수리 노인회관, 1993. 12. 16., 신향자, 한혜인, 박은실 조사.

이민영(남, 80)

맹사성이 설화산에 자리잡게 된 이유, 배방산 이름 유래.

공수1 앞

온양 가면 현재, 산이 이렇기 뻗쪽하게 생기있게, 보면 생기있게 아주 생기있게 생긴 설화

산이 있어요. 눈 설(雪)자 빛날 화(華)자 설화산. 근디 그 산 밑구녁이 맹구부리 맹정승 아실라 몰러. 알지? (조사자 : 예.) 그 양반이 거기 낙향해서 어, 성원을 모시구 그렇게 하다가 거기다 집을 짓구서 사는 향단이 있어. 향단이 있는디, 그 망해 나라가 인저 참, 그니까 사백여년 전이지요. 나라가 선찰구 그러니까. 그때 정승으루 있을 때거든. 근디 그 다 내놓구 자기 있는 재산 툭툭 털어서 죄 노봐주구 저는 인저 고향이 가서 저 파주받이나 메구 이렇게 산다구 내려왔어. 걸어서, 삼사월입니다. 해두 질구 그럴 때, 두 내외 남의 보따리 짐 이렇게 해서 들구 짊어지구 서울서 여길 걸어서 왔어요, 걸어서. 이틀 밤낮인가 하루를 왔다. 와서 저기 저기 보면 국제방적이라구 거기 있어유. (조사자: 예 예.) 거기 뵈쥬, 응? 거기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안동네가 참 좋아 뵈거든. 이렇게 보니까 맹고부리가 그러는 거. 자기네 자손이 와서 삼대까지밖에 못살 터라는 거, 지관상으로 볼 때. 그래서 여기도 있을 데가 못되는구나 해서 거기서 도루 나와가지구선, 요 다리 있쥬, 돌항교라고. 고 다리 건너서 지금 호서대학교 앞이게 거기가 좋아 뵈거든. 거기 가 뵈니까 육대 지리백에 안 된다는 거, 지가, 지리학상으루. 예이, 여기두 안 되겠다 해서 고기서 고개 하나만 요렇게 넘어오면 거기가 설화산인디, 딱 넘어다 보니까, 우리 자손이 자기 자손이 몇 백년 여기 살까다. 거기다 터를 잡았다는 거여. 그래가지구선 거기서 거기서 해가지구 맹씨네가 지금도 많이 살고 있고 자기가 인제 거기 가서 그 남의 집 얻어서 재산을 툭툭 털어서 빈 손으루 왔으니까 남의 방 하나 이렇게 얻어 가지구 거기서 뭐여, 개간을 해서 왜 그 서석두 심구, 이렇게 차차차 이렇게 하다 그 양반이 원래 정직하구 그래서 나라에서 불러가지구, 지금은 뭐 공문을 붙인다던데, 방이지, 그때 방을 써붙여서 할 수 읍이 가가지구서, 선조 때 나와서 같이 일쥬 하자 간곡히 나라에서 임금께서 그러니까 ‘아, 그러겠습니다’ 해서 여기서 다녔대는 거. 실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축지법을 했었던 모양이지. 여기선 거먹암소를 타구서는 여기서 올라대니며 출근을 했었다는 거. 그것이 애기지. (웃으며) 이해는 안 가. 지금 저기루는. 축지법을 했는지 어땠는지 축지법은 자세히 모르지만서두 여여 여기서 거먹 암소를 타구서는 여기서 서울을 출퇴근 했다는 거. 그런 저기가 있지.

배방산인디, 성터유 그게. 복부성이라구 아나. (조사자: 복부성요?) 응, 복부성. (조사자 : 예.) 복복(福)자 하구 가마부(釜)자, 부산이라는 부자. 복부성이여, 원은. 근데 인제 배방산이라구 인자 그러지. 근디 조편짜이 배방산이지, 복부성이유, 성. 복부성. 근디 그거는 복부성 그 위편이 조편짜으루 서향쪽이 거기가 방씨네 온양방씨네 시조가 사는 거. 거기가. 지금두 차타구 들어가면은 그 큰 고목나무 있구 그렇지. 근디 그 성을 쌓을 때, 고려 시대에 인제 이걸 쌓는디, 성을 쌓아서 인제 저기 하는디, 따님을 하나 뒀는디, 이거 참 미안한 말씀인 거 같으면서두 아가씨들 학생들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아주 따님을 하나 뒀든 모양이라. 그런데 성 쌓구 이렇게 해서 수 천명이 와서 지게들 지구, 수레다 얼리구 이렇게 하는디, 그댁 따님이 와 서서 이렇기 쌓는 걸 구경하는디, 섰으니 그것 땀에 일을 못하. 어어(웃으시며). 하두 아주 그냥 인물이 잘 나구 좋아 뵈니까 그 얼굴 쳐다보느라구 일을 안 한다. 그렇게 이거 되면 이건 일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했다는 기여, 읍애버렸다는 거. 그래서 꽃다울 방(芳)자여 그게, 초두밑에 모 방(方)자가. 그래서 꽃다운 인생 쳐버렸다, 그래서 배방이란 저기가 됐다는 거지. (조사자: 예.) 내가 볼 땐 그렇게 됐어. 내가 전장하구 그럴 터인데, 지장이 되서 안돼. 차라리 이렇게 해야 된다 해 가지구 대를 지키구 소를 지키고 그 답에 나가야 한다는 남자는 배짱이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루 우리는 그렇게 알아듣구 받아들이구, 그렇게 뜻을 밝히구 있어유.

5) 시조 자료

【공수리 시조 1】

공수리 노인회관, 1993. 12. 16., 신향자, 한혜인, 박은실 조사.

현광쇠(남, 74)

청산리 벽계수, 친구가 너이니, 태산이 높다하여, 백두산 제일봉은, 바람아 우지마라.

공수1앞

*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몇 번 사양하다가 구성진 목소리로 불렀다. <청산리~>가 돼야 다른 소리가 다 된다고 하면서 시작했다. 술이 좀 취한 탓인지 발음이 부정확한 부분이 많았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감을 자랑마라

일도 청해 가이면 다시

어이 오라.

명월이 남고 공산 허

이 수염 수염.

친구가 너이니련만

어이 그리로 가느고 언지

얼마는 반가웁고 나니,

어이 넌 그리 먼

한마을도 무정도 타려기

너 친구인가.

태산이 높다한들

하늘아래 무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이 읊건만은

사나이 지마니 오르고

메만 높다.

백두산 제일봉은
천만 년도 변치않고
두만강 깊은 물은
흘러 흘러 물이라
이땅의 사는 우리도
변함없이 변함없이 살자.

바람아, 우지마라
고이 어진 청자 나뭇잎이 흩떨어진다.
세월아 가지마라
높이 심하니 공무 불어라.

다. 배방면 마을 3 (회룡리)

1) 조사일정

1993. 12. 16., 이미진 기록

숙소에서 오후 2시에 출발하여 2시 45분에 사전 조사 때 미리 약속이 되어 있던 김종인 씨 사랑방에 도착했다. 사전 조사 때 만났던 할아버지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고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손철주 할아버지가 배방면 일대의 지명(地名)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 미리 연습을 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막힘없이 이어지는 말씀씨에 주위의 다른 할아버지들도 모두 재미있어 했고, 그 분위기를 타고 민형식 할아버지가 <이(李)씨 기행>, <장대장 이야기>를 장장 한시간 동안 해주었다. 무척 오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 지루한 표정 없이 열중하여 아주 따스하고 구수한, 말 그대로의 '사랑방'의 멋과 맛을 듬뿍 느낄 수 있었다.

4시 40분에 사랑방을 나와 마침 쏟아지는 함박눈을 맞으며 숙소로 돌아 왔다.

2) 마을 개관

337-850 충청남도 아산군 배방면 회룡리

1993. 12. 15. 정지윤 조사

지금의 회룡리는 예전에 낭골이라고도 불리었는데 122가구 474명의 인구로 대부분이 농업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남녀의 비율은 대체로 비슷한 편이며 가까운 곳에 호서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종교현황은 유교, 불교, 기독교로 평범하다.

좁고 긴 골목길을 한참 들어가야 보이는 곳이라 차도에서는 마을의 전경이 보이지 않는다. 음력 정월 열 나흘날 배방산에서 산신제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마을의 무사안녕을 비는 민속 행사라 한다.

3) 구연자

【회룡리 구연자1】

배방면 회룡리 70번지, 손철주(孫哲珠) 남, 68

1993. 12. 16., 김명선 조사

현재 회룡리에서 13대째 살고 있으며 서당에서 한문을 수학하였다. 한자를 많이 알고 있었고 마을 지명 유래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녹음하는 것을 의식하여 말의 표현이 어색한 곳이 간간히 있으며 표준말을 구사하려고 애를 썼다. 구연 시 손짓을 크게 하였고 감탄사를 말할 땐 무릎을 쳤다. 안경을 끼고 있었고 오른손 셋째 손가락 한 마디가 잘려져 있었다. <회룡리의 명칭>, <낭곡과 세출리의 명칭>, <맹사성어머니>를 하였다.

【회룡리 구연자2】

배방면 세출리, 민형식(閔亨植) 남, 75

1993. 12. 16., 김명선 조사

세출리에서 산지는 25년이고 직업은 농업이다. 무학이라고 하였지만 책을 많이 보았고 또 좋아했다고 한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얘기를 끈기있게 하였고 발음이 비교적 정확하였다. 군더더기 하나 없이 이야기 전개를 하여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다. 외모는 보통 키로 이마에 잔주름이 많았고 백발이다. <이(李)씨 기행>, <장대장 이야기>를 하였다.

4) 설화자료

【회룡리 설화1】

배방면 김종인씨 사랑방, 1993. 12. 16., 이미진, 정지윤, 김명선 조사

손철주(남, 68)

회룡리의 명칭에 대한 유래, 낭곡과 세출리의 명칭, 맹사성 어머니

회룡1 앞

여기가 회룡리라고 시방은 동명이 회룡린디, 아산군 배방면 회룡리라고 한 동명은 이 근래 와서 진 이름이고 동명이고 아첼 여기가 예 윈 아첼은 낭곡이라고 이름이 있었구, 구왕족¹⁾ 시절에 그때는 낭곡이었어요. 낭곡이었고, 근데 시방 명칭은 회룡린디 세종대왕께서 나쁜 병에 걸려가지구 여기 약수터를 찾아오는데 약수터가 여기서 저 양모골이라는 동네가 있어

요. 요 앞에 요 앞 그 양모골이라는 동네를 찾아오는데 여기에 이 절터구리라는 데가 그전에 절이 있었고 그 담에 인제 빈데로다 이게 폐지가 돼버렸어. 빈데 땀에 그런데 거기서 청룡이 승천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청룡이 기도를 닦고 있던 그 시기의 청룡이 세종대왕이 여기를 약수를 잡수로 오시는 동안에 보니까 여기를 찾아오니깐 그 청룡이 인도 환상을 해가지고 여기가 아니고 온양에 용화리라는 데를 찾아가라구 그래서 인도 환상²⁾을 한 사람이 용화리로 가가지고 인도해서 가가지고 거기서 그 병을 고쳤답니다. 고치고서는 되려 회동해서 돌아왔다고 해서 도를 회(回)자 용 용(龍)자를 써서 용이 인도해서 되로 되려왔다 해서 회룡리라고 지었답니다.

그 고개가 여기서 이 넘어 맵고불이 맵정승이 사신 시방 출세하신 그 고개를 넘어가는 고개가 설티고개라구 여기서 명칭을 그렇게 지었어요. 또 그라고 이 고장이 에 에 그러니까 어낭곡이라고 지은 원인이 열 개 동네를 합해서 낭곡이라고 지었었어요. 그런데 요 세출리라는 동네도 낭곡으로 데로 들어갑니다. 에 일부 복수리라는 데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세출리로 말할 것 같으면은 에 장승³⁾기지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장승기지라면서 옛날에 장승이 날 자리를 찾느라고 풍수지리들이 어 수없이 돌아 땀진 자리여. 그런데 그 자리를 찾지 못하고서는 여태 못 찾고 있던 결과 에 시방에 와서는 호서대학교라는 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호서대학교라면은 어데 있냐는 세출리라는 데 있어요. 그럼 세출리라면 인간 세(世)자 날 출(出)자입니다. 그러든 인간을 배출시키는 데가 세출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방 와서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연구한 끝에 에 호서대학교일망정 앞으루다가 장성이 얼마나 날지 어떠한 인물이 날지 그거는 누가 알겠습니까만. 그러한 유래를 시방 와서 인저 전개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바입니다.

이문안이라고 하는 데는 문이 두 개가 서있고 어 그 문을 들어서게 되면은 거기에 능터가 있습니다. 애기 능터가. 있고 또 탑골이라는 데는 그 전에 암자가 있어서 응? 탑이 있던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탑골이라고 그랬었는데 그 이문안을 들어서 보면은 거기에 전부 개와집이 들어 서 있고 또 거기에 창골이라는 데가 있구 마대라는 데가 있구 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대는 말을 양성시키는 데구 에 또 창 응 터에는 참 그러니까 시방으로 말하면은 대장간입니다. 그런걸 해 그런걸 맵기는 데가 역시 있었다는 전설입니다.

(조사자: 배방산 얘기도 있었잖아요?) 배방산, 배방산을 유래로 하면은 옛날로 말하면 천지개벽이 있었답니다. 왜 천지개벽이라는 거는 에 천지가 뒤바껴 천지가 뒤배껴 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방산만은 천지가 개벽에 대해서 배만큼 남아 남아서 어 배방산이라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시방 와서는 그거를 회칠 배 모방 배 그래서 배방이라는 이름을 명칭을 했답니다. 에 그러고 여기서 보건데 회룡리에서 천안쪽으루다가 바라다보면은 거문산이 있습니다. 거문산 이 지습에는 이빠진 산이 있습니다. 이빠진 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여기서 해 해가 밝고 한 명량한 날에 쳐다 보면은 서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서기하는 것이 과연 천지개벽에서 배방산이 배만큼 남고 헐 당시 글루다 배가 넘어 다녔답니다. 그런데 사기신을 친구서는 글루 넘어가다가 파산이 되서 시방도 그 사기 그릇이 남아서 그것이 서기한다고 그래서, 에 거기에는 에 시방으로 말하면 거가 이빨빠진 산이라고 여기서는 명

칭을 합니다.

맹정승 모친이 편모였어요. 어머니만 생전에 계셨는데 에 어릴 적에 엽구서는 여기 저기 떠돌이 떠돌이 생활을 할 적에 소잡는 디 가면 소 잡는 형국을 하고 개 잡는 디 가면 개 잡는 형국을 해서 여기두 의지할 곳이 안 되는구나 하구선 다시 엽구, 에, 방방곡곡을 헤매다가 이 에 중리라는 고낭⁴⁾을 들어왔어요. 들어와 보니께 서당이 있어서 글들을 여기저기 읽는 걸 보구선 아 여기서 내가 정착할 곳이구나. 해서 거기서 머물러서 정승 지위까장 올라서 그분이 거먹암소를 타고서는 서울 조희에 아침조희를 갔다 오시구 했답니다. 그런데 그 소는 거먹소가 아니라 그게 용마였답니다. 그러한 유래를 여기에 전설로다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회룡리 설화 2】

배방면 김종인씨 사랑방, 1993. 12. 16., 이미진, 정지윤, 김명선 조사

민형식(남, 75)

이후녕 이야기, 장대장 이야기

회룡1 앞, 뒤

옛날에 황해도 채령땅에 이후녕이라는 청년 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세상에 세 가지 포부가 있어. 세 가지 포부는 뭐냐. 보검, 준마, 미인. 이 세 가지 포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는 이 놈이 어느 날 과거를 봐서 벼슬을 해야지 그것도 못 얻고서 과거를 해서 뭐하냐 하면서 스물네 살이 되도 장가를 안 들고 (녹음불량) 아무리 암만 먼길이라도 뭐 타고도 땡기지 않고 걸어댕겨. 어느 해 겨울에 강원도에 갔어. 어 집으로 안 가고 서울 친구네 집으로 가는데 산골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아 산골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산을 넘고 헤매고 비탈길을 그만 눈을 쭉 뒤집어쓰고는 소리를 내립다 질러서 아 그래 다시 일어나서 눈을 툭툭 털고 보니까 길이 하나도 없어. 아이 야단났다. 땅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꼭 한사람이 간 자국이 있는것 같애. 그래서 인저 그 발길을 쫓아서 가는데, 얼마를 가니까 날이 벌써 컴컴해졌는데 길이 딱 막히고 가던 사람 발자국이 없어지구 그랬어. 하하 야단났구나. 사방을 둘러 빙 보니까 빈집 같은 것이 하나 있어. 저기 빈집에서 잠 좀 자야겠다. 그쪽으로 내려가니 마당께로 가니까 속이 텅빈 고목나무 하나가 있어. 집으로 들어가려니까 대문이 한 반쯤 열려. 들어가니까 앞마당에 잡초가 몇 십 년이 되었는지 잡초가 어우러져서 잡초를 헤치고선 앞마당으로 들어가니까 마루 바닥에 전부 썩어 문들어지구 안쪽으로다 좀 성한 데가 있어. 그래 거기 들어가가지구 쪼구리구 앉았어. 마루에 딱 올라서 보니께 먼지가 그냥 시방 눈이 사람이 건너가는 것같이 보니까 폭신폭신킨 발끝으로 올라 오구 그래. 그래 안쪽으로 발로다 슬슬 밀어서 먼지를 쓸구선 거기다 쪼구리구 앉아서 있으니까 배고파서 견딜 수가 있나. 그래 곰방대를 낚아서 담배를 한대를 꼬불쳐서 담배를 한대 피구서는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어디서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밖에서 뭐이 소리가 난단 말이야. “토끼야 문 열어라.” 하고 “초패왕께서 덤신다” 한 거야. 또 저 뒤 뒤쪽 같은 데서 소리가 들려 “예.” 하고 하더니 가는 것 같은데 아주 대문을 활짝 열어 놓는단 말여. 그래 아 칼을 들고 투구를 쓴 놈이 들어오면서 들어오거든, 근께. 아 어디서 난데없이 푸른 옷을 입은 군대가 한 오륙십 명 쭉 내달더니 패왕패하 만세를 부르고 굉장하거든. 그 이 사람이 뭐냐, 근데 사방

을 휘휘둘러 보더니 이 사람을 발견했어. 천천히 이 사람 앞으로 건너오더니 오더니만, “어차네도 과얀간 무인인 듯하니 우리 인사하세. 내가 서초패왕일세.” 아 이 사람이 활을 이렇게 들고서는 “요놈 이거 천하의 역적놈이 네가 패왕이라구? 이놈. 그 어진 진왕을 강물에다 몰아내서 암살시킨 장본인인 네놈이 이 조선왕에 와서 어디서 서초패왕 명목을 내세우냐?” 하면서 활을 질끈 땡기면서 탁 쏘니까 이 가슴팍에 탁 맞고 뚫려 나갔는디 대문짝에 탁 꽂히는 거야. 그러더니 패왕이라는 게 없구 푸른 옷 군대도 하나도 없이 그냥 없어졌어. 아 죽은 놈도 없구 산 놈도 없이 싹 없어졌어. 아 이상하다. 이 어떻게 된 일이나. 또 밖에서 “토끼야 문 열어라, 한왕 고 황제께서 습신다.” 하는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예” 하고 들리더니 뭐가 가는 것 같더니 대문을 열어줘. 열어주는데 곤룡포를 입구 익선관을 쓰고 아주 점잖으게 들어오거든 아 황제 그놈이 오늘은 기운이 빠졌나 보다. 먼저 간게 보니까. 아 그러더니 어디서 붉은 군대가 한 곳에 쭉 내든단 말이야. 아 그러더니 서로 뭐 살기가 등등 하거든. 사방을 휘휘 둘러 보니 고향제라는 유황석이라는 유황석이 아니지 고향제라는 분이 사방을 휘휘 둘러 보더니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어. 천천히 이 사람 앞으로 건너오더니, “너는 어떠한 백성인데 만성천자인 내가 오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평자에 앉아있느냐. 무엄하구나. 이놈.” 호통을 하는거야. “야 이놈 네가 뭐 유방이라고 이놈 네가 저 아버지의 고기를 노나 먹자고 하던 놈이 저 너를 쫓아서 그 땡기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남은 이 사람을 다 역적으로 몰아내던 장본인 네놈이 여기 나와서 무슨 황제니 만성천자니 하느냐. 너 이 활로다 쏜다!”고. 물러가라구 쏜다고 하니 싹 없어지구 말았어, 또. 싹 없어졌어. 아 그 참 이상하다. 아 그 아체 애기도 골목에서 무어이 얼른 쉽게 말하자면 무지개발로 서기가 뻗치는데 아 서기가 뻗쳐서 별난 불꽃이 인제 터져 올라가는데. (녹음불량) 이건 뭐야. 한참을 서기를 뻗치더니 차차히 주는거야. 저게 대체 뭐단 말이냐. 에이 나도 토끼나 좀 불러 봐야겠다. “토끼야, 이리오너라.” 하니께 와서 무어이 스는 것 같애. “참 뭐 시방 아까 항우니 패왕이니 하는 것들이 다 뭐냐.” “예, 그전에 이 집이 흥성하고 잘 살 적에 두 장 그림을 그려서 방에다 붙였는데 오랜 시일이 가니까 떨어졌는데 바람에 뚫뚫 말려서 굴려서 저 앞의 저 나무 속 빈나무 들어가지고서는 아 장난을 시작해서 이 근처 사람은 다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아 만날 그것들이 나와서 장난을 하는데요.” “그 그림 그 군대는 다 뭐냐?” “그 군대는 이 집이 그전에 잘 살 적에 뒷곁에 그 서편의 기 기둥과 동편의 기 기둥 옆에 금과 은을 한 단지씩 문었는데 그것이 오랜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바람을 못 쐬어서 썩아서 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거 너는 뭐냐?” “예 저는 그전에 이 집에서 잘살 적에 애들이 흙으루다 고양이를 맨들어서 가지고 놀면서 제 이름을 토끼라고 불렀지요 그때. 그래 시방도 토끼라고 합니다.” “그러? 기 이집은 그전에 누가 살던 집이냐?” “예 아 이 집은 그런 저 중종대왕 때 정승으로 있던 봉석주의 별당인데 그분이 역적으로 몰려가지구선 몰려서 죽으니까 이저 가산이 다 가족들도 다 도망가고 인제 이력 이 집이 비고 이러니까 도깨비들이 장난하니께 이 근방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녹음불량) “이 근처에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살려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 그거 쉽습니다.” “그래 말해봐라.” “거 저 두장 그림을 꺼내서 불사르고.” “저저 서기를 뻗치는건 뭐냐?” “그러니까 그게 칼입니다. 보검입니다. 그 칼은 그저 임자를 만나면 며칠 안으로 서기를 뻗치는데.” 그래서 인제 “저기서 서기 뻗치는 게 뭐냐” 니까 “예, 그건 좋은 칼이라고 그래. 그 칼을 꺼내서 잘 쓰시고 두 장 그림을 꺼내서 이저 불살르고 금과 은을 파내서 쓰시면 도깨비들은 싹 없어지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뭘 물어보는데 그땐 대답을 안해. 아 보니까 날이 벌써 활짝 밝았어, 그때는. 도깨비는 밝으면 활동을 안 하는 거니까. (녹음불량) 거기 가서 밥을 사먹고 밥

과 술을 배불리 잔뜩 사먹고서는 다시 와서 먼저 칼 있다는 데로 가서 파니께 가서 칼이 나오는데 칼집을 어피집으로다가 칼집이 칼이 나오는데 가만 보니까 칼을 쭉 빼보니까 칼이 서기를 하는데 소리도 웅하니 나고 서기를 뻗쳐. 한 번 휘둘러 보니께 참 기분이 좋아. 그래서 칼집에다 넣구서는 에 어 속 빈 나무에나 가봐야지. 거기 가서 들여다 보니께 그냥 두장의 그림이 있어. 꺼내다가 인저 불사르고 그래 인저 뒷랑에 가서 금과 은을 있는 곳에 가서 한 단지씩 나와. 그걸 갖구 챙겼는지 어졌는지는 잘 모르고, 아 벼락치는 소리가 나. 뭔가 이게 토끼 때문인데 인저 토끼가 있는 마루가 무너지면서 내리치뜨리는데 마루때기가 무너지면서 가서 이놈을 파헤치고 이놈을 보니께 토끼놈의 등어리가 푹 부러졌어. ‘어이 네가 이리 자상하게 대해주었던 네가 이렇게 되었구나.’ (녹음불량) 서울로 왔어. 친구집에 댕기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기생집에도 가구 그러는데 미인을 찾아야 하는데 이쁜여자를 찾아야 하는데 기생집에 가구 그래두 기생들도 맘에 드는 여자가 별루 없어. 며칠을 그 도깨비들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야 너 정말 대담하다 어떻게 그런 데를 가느냐.” 찬사를 받고서는 서울 기생집에 돌아다녀. 개성에 갔는데 개성 이쪽에는 임진강, 개성 저쪽에는 예성강이여. 거 예성강 하류에 벽난로 나루라는게 있어요. 나루라는 게 역사에는 우리는 부르기를 벽난도라고 하는데 역사에는 벽윤도라고 나와 있어. 벽윤도나루에 이렇게 있는데 해가 저녁 때가 되서 있는데 거 술들 먹는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들고 있는데 노인들이 서너명이 앉아 있어. 에이 나도 여기서 술이나 챙겨 사먹고 가야겠다. 그런데 그때에 말을 겨울 이면 놓아 먹이는 습관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벌말들이 마른 풀을 뜯어 먹고 무리져서 댕기고 하는데 아 갑자기 황해도쪽 강건너 황해도쪽에서 아 말울음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가 찌렁찌렁 울리거든. ‘이 뭔가.’ 아 벼락 같이 건너오더니만 그 벌말들이 풀뜯어 먹고 있는 자리 거기까지는 오니까 아 이 말들이 쥐구멍으로 들어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짝 없어지고 말았어. 그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동서남북을 뛰는데 먼지가 뽕얇게 일어나. 그 노인들이 말하자면 “아 저 사나운 놈이 또 왔구나. 저 말이 와서 백리를 다 파내서 올해 밀보리를 다 먹었어.” 거 이 사람이 “뭐 어디서 누구네 말이 와서 그래요? 누구네 말인지 내가 알기나 하우? 며칠에 한번씩 와서 저 지랄하니께.” “아 그럼 임자도 없단 말이우?” “아 임자가 있으면 저러갔수?” “아 그럼 붙들어서 저 말을 길들여 기르지요.” “아 저 사나운 말을 뉘 장사가 붙들우?” “그래 내가 붙들어야지. 쓸만하면 길들여야겠구랴. (녹음불량) 갔다와서 말한테 물려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뒷발하면 병신이 될텐데 그 뭐하러 거길 가우?” 듣지두 았구 차츰차츰 말이 있는 자리로 가서 말앞으로 쭉 가서 “이놈!” 하고 하니까 이놈 말이 앞발을 번쩍 드는거야. 주먹으루다 이게 뒤통수를 탁 때리니 가만히 있어. 쭉 올라앉아서 발로다 옆구리를 지썬 하니까 이놈의 말이 동으로 뛰고 서로 뛰고 그냥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번개불 치듯이 그냥 뛰는데 한참을 몇 바퀴 돌다가서 주막있는 데 가서 말갈기를 풀고 잡아끄니까 주막에 있는 놈들이 그냥 손살같이 달려오구 우뚝 서서 꿈쩍을 앓고 섰어. 아 노인들이 “아 천하장사다. 저렇게 사나운 말을 강아지 다루듯이, 참 몇 십 년을 누구 길들인 말보다 더 말을 잘 들으니. 야 이 웬일이냐?” 하고 그 찬사가 대단해. 그거 그 말을 세워놓구 주막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에이 난 갈길이 머니까 어서 가야 하니께 여기서 많이 들 놀다 가시우.” 그러니께 나와서 보니께 해가 벌써 다 넘어가서 다 저녁때 다 넘어갔어. 말장에 붓짐을 쥐구선 발로 차니까 뛰는데 막 강을 건너서 뛰는데 그저 강에서 얼음과 눈이 깨져서 뒷발로다 차내는데 뽕얇게 일어나거든. 그런데 거기서 해주가 백 한 육십 리쯤 될꺼야. 아 일찌감치 들어갔어, 거기를. 말 잘 하는 집에 가서 주인보고 말 좀 잘 (녹음불량) 가서 말굴레와 안장을 좀 부탁하니께 (녹음불량) 친구집이 찾아가서 며칠 간을 놀면서 인저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말 얻은 얘기도 하고 인제 도깨비 얘기도 하고 그러니 친구들이 “너는 참 이상하다.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했냐, 너는?” 찬사가 대단해. 거기서 또 기생집에 댕기면서 아 기생들이 쓸 만한 게 없어. 내 맘에 드는 게 없어. 에이 집이나 돌아가자. 집이 노모하고 누이 동생이 하나 있는데 둘이 집에서 사는데 집으루 왔어. 집에 와서는 며칠 있다가 소와 돼지를 잡아서 설랑은 놓고선 그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한바탕 차리고서는 나는 내일 서울로 이사갑니다. 서울로 이사갔어. 이사 와가지고선 그 이듬해 겨울에 봄겨울이 아니라 봄이지. 춘삼월에 돼는데 서울에도 동서남북이 활쏘는 터가 많지만은 도대체 서울서 화쏘기가 싫어서 거기서 지방으로 내려가야겠다 하는데 공주 감령에서 퇴사활쏘기가 있다 그러더라. 그래 거기 가야겠다. 그때 말이 있으니까 인제 홍성땅에 갔어. 해주에 가서 냇가를 타고 내려가는데 능수버들이 축축 늘어지고 꼬트머리가 파릇파릇 하는 거성 축축 늘어서는데 참 기분이 좋아. 그래 냇가를 슬슬 걸어 내려가는데 어디서 빨래를 해. (녹음불량) 보니까 언덕 위에 큰 기와집이 하나 있구 담장을 확 둘러쌌는데 그 담장에다 벽도와 나무를 심었는데 벽도와 나무가 담장 밖으로 가지가 하나 나와서는 하얀 꽃이 활짝 폈는데 참 경치가 좋아. 빨래 소리를 듣구선 자꾸 쳐다보는데 처녀 같은데 빨래를 하고 있거든. 그래 보니까 미인 같애. 옳지 이제 미인하나 만났구나. 인제 그 가보니까 어떤 처녀가 거기서 빨래를 하고 있었거든. 보니까 힐끔 쳐다 보구선 다시 빨래를 빠는데, 보니까 미인이야. (웃음) “여보 아가씨 물 좀 한바가지 얻어 먹을 수 있소?” 그러니까 봤더니만 바가지에다 물을 길러서 드시라구 받아서 물을 맛나게 먹구선 그냥 갈수가 있어야지. 미인을 만났으니 그냥 갈 수가 있어야지. “이 근처 하룻밤 자고 갈만한 주막이 없소?” “여긴 산골이라 주막도 없고 읍내나가야 있어요.” “그 읍내가 몇 리나 됩니까?” “사십리래나 봐요.” “아이구 이 해를 가지구 어떻게 40리를 가나?” 이 여자가 “아이구 그저 우리 영감 마님이 살아 계실 적엔 이런 나그네가 자고 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 사람이 생각하길 ‘이 사람이 분명 이 동네 어느 하녀 아니면 종일 것이다. 외간남자를 보고도 피하지 않는걸 보니까 분명히 하녀가 아니면 종인데. 그 그렇게 애길하거든 그 저의 집에서 주무시는 문제가 아닌데 저의 에서 주무시면 위험합니다. 아이 위험하다면 난 더 좋소. 나 요 주먹으로 호랑이 세 마리를 당장 때려잡을 수 있으니까. 돼려 편안히 무료하게 자구 가는 것보다 한결 낫지요. 이 여자가 얼굴을 한참을 바라보더니 절 따라오세요. 하더니 빨래하던 걸 다 담아가지구선 옆구리에다 끼고선 가는데 그 집 큰 대문으로 안어가고 저 뒤로 간단 이야. 뒤로 쫓아가니까 저 마루로 시켜먼 데려가가지구 따라가는 야. 보니까 어떤 골목이 보이는데 거기에 방문이 하나 보이는데 방문을 열어주면서 이게 제가 혼자 거처하는 방인데 들어가세요. 들어갔지. 들어가 보니까 아랫목에다 요를 깔아 나란히 놓구선 침구들이 아주 제자리에 확확 저 있을 자리에 질서가 질서정연하게 다 있어. 그런데 해가 졌어. 해가 졌는데 인제 밥 갖다 줄 생각을 안 해, 엠비. 그래 어떻게 어떻게 하겠어, 엠비. 내 전번에는 도깨비 소굴에 들어갔더니 이 집에는 위험하다 하더니 이런 일이 또 있단 말이야. 좀 있더니 여자의 발자취 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여자가 들어오는 모양이야. 그래 밥상을 갖다 마루에 놓구서는 문을 들들 열고 들어오더라. 아이구 손님 밥에 대접 못해 드려서 죄송스러워 어떻게 해요, 용서하세요. 그래 밥상을 앞에 놓구선, 때를 그 전에 시방도 아마 그런 집들이 있겠지만 옛날에는 손님 밥그릇은 꼭 때를 썩웠어요. (조사자: 때요?) 때. (조사자: 뚜껑요?) 그래 그걸 바리떼라 그러지. (조사자: 예.) 그걸 덮었어. 그런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맛있게 생겼어. (웃음) 맛이 있으나 없으나 뭐 먹을 참이지만 한 숟갈 떠먹고 또 한 숟갈 떠먹고 그런데 맛있게 생겼어 그래. 한 숟갈 두 숟갈 한 숟갈 또 먹고. 근데 노란 기름이 한 잔 가득하니 있단 말이야. 그래 쪽 들어 마

졌지. 쪽 들어마시고선 잔에 또 따라 줘. 또 먹었지. 또 서너 번 따라주니 서너 번 들어 마시고 기름 먹고 인제 밥먹고 그러는데 아이고 생전에 이렇게 미인을 앞에다 놓구선 밥먹어 본 지가 없는데 미인을 앞에 놓구 밥먹으려니까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뭐 정신없이 들어가요. (웃음) 아이고 손님 농담두 잘 하시네요. (웃음) 아 그래 그 틈을 타서 (녹음불량) 여자가 하는 말이 손님께서 뭐든지 요구하는대로 다 들어 드릴 텐데 아무 염려 마시고 그저 밥이나 잡수라고 그러. 밥을 다 먹었어. 다 먹더니 (녹음불량) 그렇게 된 거지. (청중: 웃음) (녹음불량) 문을 열고 들어가 촛불에다 불을 켜 보니까 지방이 이렇게 붙었어. 불을 켜 봤더니 지방이 붙어서 물어보니 (녹음불량) 몇마디를 되풀이하면서 울고 그러더니 나오는데 보니까 얼굴에 눈물이 줄줄 흘렸어. 그래구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나. 지방 (녹음불량) 위험하다는 건 뭐냐 물으니, 이 집이 옛날에 승지택인데 승지택에 늙어서 그때 열아홉 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바⁵⁾에서 혼처 자리가 들어오는데도 마다하고서 그냥 여기서 (녹음불량) 저는 이 택 안방마님의 고종지기의 딸 옥분이라 그러합니다. 인제 제가 그 때 열 다섯 살 때 이 (녹음불량) 왔는데 그제 여기 와서 안방마님이 병환 병환이 나서 돌아 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서 인제 아 그 제 사촌 오래비가 이 집 청지기로 있었는데 청지기가 인제 바깥에서 일을 하는데 대문 밖에서 나가서는 집에 돌아가 보니까 그냥 뭐 주무시는 듯이 그냥 돌아가셨지 뭐. 그래, 어떻게 장례를 모셨는데 그래서 인제 안에서는 안쪽에는 제가 하고 바깥쪽에는 청지기가 바깥쪽으로 돌아다니며 하는데 서방님은 여막에 나가서 여막을 지키고 여막에 나가서 여막을 지키고 인제 여막에 나가 보니 여막에서 서방님이 토해 놓고 돌아가셨어. 아이구, 그래서 인제 관가에다 고발을 할꺼냐. 그러자 제 사촌 오래비가 (녹음불량) 살기 싫다고 나가데요? (녹음불량) 아씨가 혼자 안방 계시고 나는 이 방에서 사는데 바느질은 밤에 바느질을 하다가서 뭐 아씨방에 가서 찾을게 필요한 게 있어서 찾아러 갔더니 아 가다가 보니까 보니까 사람의 소리가 들리네요. 깜짝 놀래서 가만히 문틈으로 들여다 보니까 아 살기 싫다고 나간 청지기하고 아씨하고 서로 껴안고 술을 마시며 서로 껴안고 못 할 짓을 하는데 쳐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 만날 보니까 맨날 저녁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지방 석장을 붙여놓고 만날 이렇게 빌었더니 엿저녁 꿈에 영감마님께서 나타나서 가지고 네 배 배필이 될만한 분이 앞으로 지나갈 테니 너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서 놓치지 말고 데리고 들어와서 내 원수를 갚아다오. 그러길래 별로 빨 것도 없는데 빨래감을 가지고 가서 빨고 있었어요. 그래? 그러더라구.이 년놈들을 당장에 (녹음불량) 서방님은 호랭이 세 마리를 때려잡지만 이 자는 열 마리를 때려잡습니다. 위험합니다. 인제 앉았더니 조금만 있으면 미인 구경가겠습니까? 그래 얼마나 잘난지 보자. 그러고 나가서 보니 달이 흰하고 보름달이 떴어. 아 보니까. 참 이빠. “야!” 소리를 지르려고 하니 참구서 (녹음불량) “야, 참 이쁘더라 한 천지에 일색이야. 저는 아씨에 비하면 발바닥의 때도 안 뵈니다.” 그래. 때가 되거나 거름이 되거나 너만한 미인이면 고만 되었다. (웃음) 그래고선 왔으니 “죽여야지.” “안 됩니다. 참아야 합니다. 긴장이 풀려야 됩니다.” 인제 긴장이 풀린 듯하니, “가 보셔야지요.” “그래, 가보자.” 쥐잡으러 가는 고양이 걸음으로 설금설금 인제 보니까 아, 술이 취해가지고 여편네하고 노는데, 여편네가 하는 말이 맨날 아렇게만 살게야? 어디 가서 버젓이 살아야지. 그렇잖디 새벽에 떠나서 십리라도 내가 어떻게 밤에 십리를 걸어요? 십리 못 걸어가면 내가 업고가지. 업히긴 내가 어린애냐? 아 어린애보다 더 날씬하고 손바닥으로 들어가는데. 아 근데 말야, 이 옥심이 년을 데리고 가야할 텐데. 뭐 어떻하지? 뭐 그럼 죽여버리면 되지. 내가 상전 둘씩 죽였는데 그 까짓 사촌 하나 마저 못 죽일까. 그 거마저 죽여야지. 아 그때 문을 벼락같이 치면서 들어서 이 천천만옥을 해 죽일 년놈들. 그

래 소리를 버럭 지르니 아 손을 번쩍 들고와 그래서 칼을 톡 치니까 팔이 톡 떨어져 (녹음 불량) 두 다리가 탁 떨어지면서 탁 넘어져 쓰러졌어. “이거 너 죽어서도 나를 다시는 원망하지 말아라. 너 하늘에 죄를 지고 죽는거니까 내 원망은 조금도 말아라.” 그리고서는 목을 치니께 톡 떨어졌어. 그래 피가 뭐 바닥에 방에 가득하지. “저 년마저 죽일까?” “아유, 이르다 뿐이예요? 마저 처치해야지요. 원 드러워서 말도 다 안나오네.” 쪼그만 여잔데 목아지를 찢르는 장사도 목아지를 찢르는데 여자 목아지 찢르는거야 뭐. 톡 치니께 떨어졌어. 아, 피가 그냥 방바닥에 있는데, 방바닥에 톡하니 주저앉더니, “서방님 그 칼로 저 마저 죽여주세요.” “아, 그 무슨 소리냐?” “아, 상전의 원수를 갚으려고 또 한 상전을 죽이고 제 사촌 오래비까지 죽인 년이 살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칼로 저를 마저 죽여주신다면 저는 그저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 “네 소원이면 너마저 죽여주마.” 칼을 번쩍 드니까 뒤에서 뭐가 잠깐만 하는 거야. 팔을 꼭 잡는 거야. 그래 보니까 젊은 선비가 뒤에 있는 거야. 그래 보니까 선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서방님 참 분하셔서 나타나셨군요. 이제 원수를 갚았으니 안심하시고 극락에 가세요.” “네 맘은 참 네 충성심은 하늘이 측량케 할 일인데, 고맙다. 나 네 은혜를 갚을 길이 없구나. 그래 내 네 배를 빌어서 어머니로 모시는 것밖에는 갚을 길이 없다. 그러니 상전을 죽였느니 오래비를 죽였느니 그런 저것들은 하늘에 죄를 저서 죽었지 일부러 죽은 것도 아니고 너가 죽인 것도 아니야. 그러니 네가 그런 말을 일체 너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이니께 그런 말 쓰지마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은혜를 갚을라면 다시 태어나서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앞으로 곧 십 년이 있으면 곧 큰 난이 있을 텐데 그때 나가서 공을 세우세요.” 그래. 그리고선 없어지고 말아. 십 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그때 나가서 싸우긴 싸워야 하는데 독불장군 혼자서면 싸우면 군사도 모집도 못하고 해서 이순신 장군 앞으로 들어가서 해군 이순신 앞으로 들어가서 싸워 보니께 이 잘 싸워. 어디든지 가면 승전하고 그래. 여기가 끝이야, 인제. 여기가 끝인다. 역모로 몰려 죽었지.

어느 임금 때에 시골의 어떤 사람이 글을 많이 배운 사람인데 과거를 보러다 과거를 보러가는데 아 가다가 걸어가다가 그 때는 걸어댕기는 거니께 자야 되는데 잘 데가 없어. 집두 없구.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는데 큰 기와집이 있어. 찾으니까 대답이 없어. 대문을 들어가서 찾으니까 대답이 없어. 대문을 또 하나 들어가서 찾아 들어갔는데도 대답이 없어. 그래 찾았어. 처녀가 하나 나오는데, “길 가던 나그넨데 해가 다 저서 갈 데가 없고 그러니 여기 자고 갑시다.” “저희집에선 못 주무십니다.” “왜 그래요?” “저희 집에서 주무시면 손님께서 돌아가십니다.” “아 자고 갑시다.” 그래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열두 식구가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뒤에 절이 있는데 절주지하고 아주 절친했지요. 그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아 얼마 안 있다가설랑 그 지주가 없어지고 어디서 돌중놈이 들어와 가지고 절을 차지하고서는 그 주지를 죽였는지 엇다 없었는지 그 돌중놈이 차지했는데 아 그 놈이 내려오더니 우리 열두 식구 열한 식구를 다 죽이고 저만 하나 남겨 났어요. 아 이 놈이 새벽에만 내려와 나를 그냥 못살게 구는데 이거 내가 죽을 수는 있지만 그 원수를 못 갚고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지껏 살고 있습니다. 인제 무섭습니다. 아주 무서워요. 근게 가시유. 그 놈한테 죽습니다.” “에이, 내가 원수 갚아준다.” 그러라구, 저녁을 해다 주는데 잘 해다 줘. 그런데 그러더니 벽장에다가 가둔단 말야. 벽장에 올라가서는 그때 이제 사람들은 활들을 대개 가지고 다녔던 모양이야. 활을 잔뜩 미여매고선 벽장에 숨어 있는데 아 밤중에 가만 있는데

마루가 쿵하는데 보니까 아 대가리털이 이렇게 올라간 놈인데 참 눈이 이만큼씩하고 참 무서운 놈이야. 아 활을 가지고 쏘려고 하는데 맥아리가 없이 날아가서 놓치고 말았어. (웃음) 어떻게 무서운지 아 그래 어떻게 무서운지 여기서 빠져나가야 하는데 예 벽장에 그저 요새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벽장에 그전에 창을 하나 냈어요. 벽장이 껌껌하니까 밝으라구 창을 냈어요. 창구멍을 찾아 빠져 나갔어. 도망을 갔어. 도망가서 장원을 했어. 벼슬을 했는데 아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옛날 얘기를 시키는데 아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옛날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 차례가 왔는데 얘기를 할려니까, “저는 옛날 얘기도 모르고 아무 얘기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 글썄 아무 얘기를 하라고. 밥 먹고 똥싼 얘기라도 하라.”고 하니, “그럼, 오다가 겪은 얘기를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아 그야 더 좋지.” 그런 얘기를 했어. “그렇게 돼서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래. “아 자네 못 쓰겠네. 아 내가 인재를 뽑을 땐 날 도와 달라고 뽑았는데 내가 곤란할 때 자넌 도망갈 거 아닌가? 이 사람 저저 삭제하라고.” 그 때 장대장, 장대장 장대장이 유명한 사람인데 참 아는 분은 모르는 분 혹시 모르는 분이 있어요. 장대장이라고. 장대장이 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보고서 장대장 그 사람이 보고서 어디냐고. 아무 아무개라고. “에이 내가 가봐야겠다.” 갔어. 가서 인제 해질녘을 기다리고 있다 가서 낮에 가면 그 집에서 잔다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해가 질 때가 돼서 집을 찾으니까 안으로 쑥 들어가서 12대문 넘어 들어가 찾으니까 이 여자가 나와. “지나가는 나그넨데 하룻밤만 자면 좋겠습니다.” “저의 집에 자면 위험합니다.” “뭘가 위험해요?” “아 글썄 위험하니까. 선비는 여기서 주무시면 돌아가십니다.” “어 그런 얘기하지 마슈. 아 아무 말씀하지 마쇼.” “저번에 호언장담하시던 분이 와서 밥을 잘 차려 드렸더니 아 어떻게 빠져 도망갔는지 도망간지도 모르게 도망갔는데 (웃음) 아 그때 내가 당황했으면 원수도 우리 부모 형제의 원수도 못 갚구선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 괜히 허튼 소리 하지 마쇼.” “아 나는 그거 다 알고 왔으니까 염려 말고 내가 원수 갚아줄 테니까 여서 자게 해달라구.” 그래 밥을 차려다 줬어. 먹었어. 먹구서 그래서 이제 벽장에 올라가서 있으니 마리⁶⁾가 쿵하고 울리더니 그 중이 온단 말야. 아이, 껌안고서 아주 그래. 에이, 하나 먹고 죽어라. 넙적다리에 가서 탁 쓰니까 여기에 탁 맞았어. 아 하고 하니 또 쓰니까 쑥 들어갔어. 아 그래 잡아들였지. 죽여버렸어. 그래 죽었는데 그러고 갈려고 그러니까 아 여자가 붙드는 게야. “이 은혜 갚을 길이 없으니까 내 몸으로 때워나 줘다.”구. 그러지 말고(녹음불량) “나는 부인이 이미 있으니까 나한테 달라붙지 말고 좋은 사람 찾아서 잘 살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 몸을 바쳐서 내가 하겠다.”는기여. “아 이 안 된다.”고 그러니 나가는기여. 나가는데 얼마를 나가는데 막 (녹음불량) 이 여자가 용두사 용마루 위에 가서 딱 서서리 있는데 (녹음불량) 가야 구할 수도 없고 며칠을 있다가 한 삼사일 있다가 꿈에 그 여자가 보이는 거야. 꿈에 뵈는데 그저 내 소원을 안 들어줬다 이거지. 은혜를 갚으려고 했는데 소원을 안 들어줬다. 그냥 꿈에 뵈이기 시작하는데 맨날 꿈에 뵈. 맨날 꿈에 뵈 하이튼 그 여자가 그러더니 꿈이 아니라 눈만 감으면 뵈. 이렇게 눈만 감으면 뵈. 그래 그 여자가 뵈고선부터 기력이 자꾸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 그냥 자꾸 견딜 수가 없는데 내중엔 눈만 감아도 뵈요. 눈만 감아도 뵈는데 몸이 척근⁷⁾해졌어. 그때 그때부터 몸이 척근해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진겨. 그때는 눈을 안 감고 정신을 어다 가만히 봐도 뵈. 그 여자가 뵈. 그래서 벼슬을 휴계를 내고서 세상구경을 좀 땡겨야겠다. 이리저리 땡기다 절간엘 들어갔어. 주지 주지가 바짝 마른 사람이 있어 거서 인저 며칠 극지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아 우리 산림구경이나 나가보세. 그래서 가십시다. 산을 휘휘 산을 땡기면서 보다가서 보니까 한군데 가니까 너러바위⁸⁾가 주욱 널려 있는데

평평하고 참 좋아. 거기에 앉았어. 너리바위가 이렇게 나가서 여기서 똑 떨어졌는데 천애⁹⁾ 마냥 떨어졌는데 그 앞에 소위가 있는데 물이 펄펄 돌거든. 그런데 둘이 앉아서 있는데 중이 먼저, “나리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몸이 수척하십니까?” 그랬더니 “말씀 좀 하시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좌악 했어. 이렇게 된 얘기가 그 여자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여자가 시방 현재도 여기에 와 있다구. 계속되는 얘기 아닌가?

1) 구왕족: 구왕조, 조선

2) 인도 환상 : 용이 사람의 모습을 해서 나타남.

3) 장승 : 장성

4) 고냥 : 고장

5) 사바 : 사방

6) 마리 : 마루

7) 척근 : 수척

8) 너리바위 : 너럭바위

9) 천애 : 천인만애, 높은 절벽